

하던 것으로 그彫刻樣式은 麗代로 推定된다.

5、石造佛座像(其二) (現存高二五cm 現存膝幅一七·五cm)

赤褐色安山岩造로 頭部·頸部·右半身이 破缺되고 左半身만이 남아 있는 破佛로서 部落民에 依하여 寺址에서 發見되어 忠南道敎委에 保管되어 있다. 破缺로 因하여 頭髮·顔容·頸部 등의 彫刻 모습은 알 수 없고 殘存한 左半身은 精巧한 彫刻手法을 보이고 있다. 通肩衣에 衣紋이 優麗하니 法衣는 衣襟三條線이 胸前에서 U字形을 지었고 그 안으로는 袪衣의 매듭(結帶)이 보이고 肩部로 부터 안쪽으로 비껴 주름지다가 腕部에 外反하여 무릎을 덮었으며 膝部 밑에 扇形衣褶이 造出되었었으며 特히 胸部·肩部·膝部에는 華麗한 瓔珞飾이 있어 注目된다. 그리고 結跏趺座에 兩手를 臍前에 모아 寶珠를 들고 있다. 以上 記述한 衣紋·瓔珞飾 寶珠를 들은 手印 등으로 보아 菩薩像으로 推定되며 그 彫刻樣式은 麗末의 優作이라 하겠다.

寺址에는 이밖에 도 石造遺物殘片이 많다. 特히 石燈殘石과 石塔殘石 등은 注意를 끌고 있다.

① 石燈殘石은 伏蓮下臺石과 八角蓋石 등이 있어 既往에는 金堂前에 石燈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② 石塔殘石은 金堂址의 西北쪽에 高麗石塔樣式을 보이는 屋蓋石一個를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殘片의 數値로 보아 規模가 작은 石塔으로 推測된다. 이것으로 普願寺에는 金堂 앞의 現存하는 五層石塔以外에 또 石塔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註

① 普願寺址에 가까운 곳에 있는 百濟石窟式東向伽藍인 泰安磨崖三尊佛、雲山磨崖三尊佛이 있고 또 最近에 發掘調査된 扶餘金剛寺址가 亦是 典型的인 東向伽藍이며 新羅의 慶州石窟庵이 또한 典型的인 東向伽藍이다.

② 考古美術 第三卷 第四號拙稿 「保寧聖住寺址의 金堂址」參照

密陽 崇眞里 三層石塔

李 雲 成

密陽郡 三浪津邑 崇眞里 龍隱洞에 遺存하는 三層石塔 一基를 紹介한다. 密陽邑에서 洛東江의 順流를 따라 約六km 道路를 타고 南下하면 林川里라는 마을이 나서고 거기서 다시 東北方으로 二km의 奧地에 龍隱洞이 있으며 洞口를 훨씬 벗어난 山 밑 耕作地 가운데 石塔이 서 있다. 이곳은 ① 瑩源寺址와 ② 萬魚寺等 佛蹟을 거느린 ③ 慈氏山의 南麓으로서 西南向한 마을의 前方에는 洛東江岸의 ④ 광나루(廣灘)와 洞里於口에 넓은 ⑤ 王堂들을 바라볼 수 있다. 石塔附近 田畾이나 개천에는 많은 瓦片和 磁器破片을 散見할 수 있고 石塔도 原位置인 것으로 보아 이一帶가 寺址로 推定되는데 洞民(李愚益氏談 五三歲)의 말에 依하면 이곳을 ⑥ 加利寺址로 傳稱한다고 한다. 寺址로서의 特別한 遺構나 遺跡은 없으나 約七、八年前까지만 해도 田畾을 深耕하면 完形에 가까운 磁器와 文樣있는 기와장 그리고 정맞은 石材가 多數 出土되어 洞里에 搬出하였다 하며 至今도 는 두렁 築臺 등에 注目되는 石材가 눈에 뜨인다.



石塔은 花崗石、單基壇、相輪部는 없 이 있고 三層 屋蓋石이 地盤위에 落下되어 後人들에 依하여 훼손된 흔적이 歴然한데 이 마을 父老 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日帝 中葉 密陽邑居住의 어느 日人

이 자기 집 庭園에 이 탑을 옮겨 놓기 위하여 解體하려다 洞民들의 反對로 失敗하였노라 일러준다. 地上으로부터의 높이 三三〇cm의 아담하고 조그만이 塔의 地臺石은 아무렇게나 쌓아 올려진 自然石地盤에 埋沒되어 그 結構를 알 수 없고 基壇面石은 通式(四)의 四枚構成이나 그 中 南面石만은 右側隅柱의 下半部를 別石으로 끼웠는데 이는 石材 裁斷形 便上 不得已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各面마다 幅 一五cm—一七cm의 隅柱가 造出되어 있다. 甲石은 大小 二枚로 落水面에 若干의 勾配가 졌고 副椽이 있으며 上面에 二段의 木釘과 皮임을 彫出하여 塔身을 받고 있다. 屋身石에는 各層마다 隅柱가 刻出되어 있고 屋蓋石은 받침이 三段式이며 上面에 各一段의 皮임으로 塔身을 받고 있다. 一、二層의 屋身石과 初層·三層의 屋蓋石은 各一個石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二層屋蓋와 三層屋身만은 一石으로 連接되어 있으며 上面에 一邊 一三cm 深 九cm의 角形舍利藏置孔이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落下的 三層 屋蓋의 上面에는 直徑 七cm 深 一〇cm의 擦柱孔이 있을 뿐 露盤以上の 相輪部는 모두 없 어졌다. 各屋蓋의 落水面은 傾斜가 急하고 처마는 두꺼운 편이나 轉角의 返轉이 비교적 輕快하여 各層의 遞減도 있어서 全體的인 構造와 手法으로 ⑦ 萬魚寺 三層石塔과 彷彿한데가 있음으로 麗代의 作品이라 推 定할 수가 있다. 實測值(單位cm)

基壇	面石高 一三〇	幅 七四	甲石長 一四六	厚 七	
一層	屋身高 幅 五五	隅柱幅 一二	屋蓋長 一〇七	厚 三六	
二層	二〇	五〇	九	九六	三二
三層	七	三四	五	七五	二六

註

- ① 瑩源寺址……密陽郡密陽邑活城里二區所在의 高麗寺址·本誌三 五號(四卷六號)瑩源寺址와 出土遺物(尹容鎮)參照
- ② ⑦ 萬魚寺……密陽郡三浪津邑龍田里萬魚山에 있는 高麗寺刹, 本誌三八號(四卷九號)密陽萬魚寺 三層石塔(鄭永鎬)參照
- ⑧ 慈氏山……遺事 魚山 佛影條에 〈萬魚寺者, 古之慈成山也, 又阿 耶斯山, 當作摩耶斯, 此云魚也〉라 하여 慈成山即慈氏山·慈氏山

④ 即 萬魚山으로서 佛蹟이 있는 名山임.  
광나루(廣灘)……密州誌에 〈廣灘, 在凝川下流, 潮汐注之頭, 商 船所泊之處……壬辰四月十八日, 府使朴晉, 領兵遮賊于鶴院, 朴爲 賊所追, 不得由大路避渡此灘江, 右諸軍未詳其深淺, 爭先徑渡, 太 半溺死〉라는 기록이 있어 壬辰亂의 遺蹟地임

⑤ 王堂……密州誌에 〈今昔勿里西, 有王堂亭, 世傳, 羅王遊幸萬魚寺 時, 憇于此地〉라 하여 慈氏山佛蹟과 關聯됨

⑥ 加利寺址……廢寺後 오랜 後日에 이르러 高麗寺로 傳稱된 것이 加 麗寺 或은 加利寺로 訛音된 것이 아닌가 함. 或 萬魚山(慈氏山) 佛蹟圈內에 있는 寺刹이었으므로 遺事 魚山佛影條의 訶羅國佛影 事에서 派生된 이름 訶羅寺에서 傳稱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음

資料

「恭安府」銘 粉靑沙器의 新例

姜 敬 淑

이번 蔣奎緒氏所藏 「恭安府」銘 沙鉢 하나를 調査할 機會가 있었기에 여기에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全體的인 釉調는 靑綠과 黃綠의 靑磁末期作品의 色調를 띄고 있으며 均衡이 잡히지 않은 이글어진 沙鉢이다.

「恭安府」란 李朝初 定宗의 上王府로서 一四〇〇—一四二〇年 사이에 存續했던 官廳이름인데 이러한 恭安府銘 그릇의 例는 이미 여러 論文에 引用된 바 있다(註一). 이 恭安府銘 그릇의 胎土는 굵은 모래가 섞인 低 質의 風色胎土를 使用했고 靑磁系의 透명한 釉藥을 使用했으며 그 光澤 도 內外面이 대단히 良好하다. 그릇 內部의 文樣은 二重蓮瓣의 粗雜한 單線蓮瓣帶를 두르고 口緣部의 雷文帶와 의 사이에는 雙線의 蓮花文帶가 역시 성글게 象嵌되어 있으며 裏面은 三cm의 間隔을 두고 等行雙線의 白 土象嵌을 한 후 그 안에 다름게 雷文帶를 넣고 있다. 이 雷文帶 아래에 다